

# KWDI

## 해외통신

2020년 5월 1차 (2020.5.1 ~ 5.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프랑스 FRANCE

#### 프랑스, 이동 제한에 따른 가정폭력 증가에 피해 신고방법 다각화 및 관련 예산 지원 확대

박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많은 국가가 이동 제한령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는 외출하지 않고 장기간 자택에서 머무르며 생활하는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프랑스의 경우, 이동 제한령 기간에는 음식이나 약품 구매, 의사 방문, 운동과 같은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되었다. 현재 일부 완화조치가 논의되고 점진적으로 시행되기도 있으나,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일상을 영위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 그런데 이동 제한령이 실시되면서 한 가지 의도치 않았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가정폭력 피해의 증가이다. 사람들이 집에서 가구 구성원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건 역시 늘어나게 된 것이다.
- 프랑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Christophe Castaner) 내무 장관(Minister of the Interior)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이동 제한령이 발표 및 실시된 3월 17일 이후 국내 가정폭력 신고가 약 30% 이상 증가했는데,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 파리 시에서는 약 36%가 증가했다고 한다.
- 이미 프랑스는 유럽 지역에서도 가정폭력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이전 또는 현재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하는 여성(18-75세)이 매년 약 21만 9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에서는 3일에 한 명 꼴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집계된 가정폭력 피해 사건 중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20% 정도에 불과하다.

#### 참고자료

- Euronews(2020.03.28.),  
“Domestic violence cases jump 30% during lockdown in France”,  
<https://www.euronews.com/2020/03/28/domestic-violence-cases-jump-30-during-lockdown-in-france>  
(접속일 : 2020.05.07.)
- France 24(2020.03.30.),  
“France to put domestic violence victims in hotels as numbers soar under coronavirus lockdown”,  
<https://www.france24.com/en/20200330-france-to-put-domestic-violence-victims-in-hotels-as-numbers-soar-under-coronavirus-lockdown>  
(접속일 : 2020.05.07.)
- France 24(2020.04.10),  
“French domestic violence cases soar during coronavirus lockdown”,  
<https://www.france24.com/en/20200410-french-domestic-violence-cases-soar-during-coronavirus-lockdown>  
(접속일 : 2020.05.07.)

마를렌 시아파(Marlène Schiappa) 성평등 담당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Gender Equality and Combating Discrimination)은 언론사 France 24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를 알릴 수 있도록 마련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긴급번호인 114에 문자를 보내거나 동네 약국에 가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방안이다. 또한 정부는 운영 중인 마트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임시 팝업(pop-up) 지원 서비스센터도 마련했다.

시아파 장관은 다른 언론사 Le Parisien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령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 지원시스템이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들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약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일종의 암호를 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스페인에서 먼저 시작된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여성이 약국에서 “마스크19(Mask 19)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이 말을 들은 약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주고, 피해여성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즉각적인 개입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약 1백만 유로(한화 약 1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조달하여 가정폭력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집에서 나와 피신하는 경우, 호텔 및 보호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한 숙박일수는 총 2만일에 이르는데, 이는 1천여 명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이 아닌 호텔에서 20여일을 임시로 묵을 수 있는 정도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증가하는 가정폭력 피해는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프랑스 외의 국가들이 가정폭력 피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France 24(2020.04.21.),  
“French gender equality minister on helping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during lockdown”,  
<https://www.france24.com/en/20200421-french-gender-equality-minister-on-helping-victims-of-domestic-violence-during-lockdown>  
(접속일 : 2020.05.07.)



## 캐나다, 코로나19 상황의 온라인 성착취 증가로 미성년자 보호 TIP 숙지 권고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와 섯다운이 길어지면서 아동 성 착취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알버타(Alberta) 주 경찰 인터넷 아동착취 담당부서 (Internet Child Exploitation: ICE)에는 2020년 3월 한 달간 243건의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과거 2년간 같은 달에 평균 110건이 보고된 것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 착취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근처 경찰서나 온라인(Cybertip.ca)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Cybertip.ca 으로 접수된 신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섯다운 이후 대폭 늘어났다. 경찰은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성착취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사태로 공원과 놀이터 까지 닫은 마당에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서 온라인게임이나 SNS, 채팅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범죄에 노출이 된다는 것이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이런 온라인 공간에 범죄자들이 섞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유혹하는데 능숙한 이들에게는 처음에는 가해자와 비슷한 나이대로 속여 접근한 후 성적인 대화를 유도, 사진이나 비디오 등을 보낼 것을 제의하는 것이 흔한 수법이라는 것이다. 2020년 4월 퀘벡주 가티노(Gatineau) 경찰 또한 인기 온라인게임을 통해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접근,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집으로 초대하는 등 아동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사례를 공개하면서 비상사태 동안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을 부모들이 특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캐나다 아동 보호 센터(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에 의하면 가해자들은 자신들을 캐퍼(Capper)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사진과 비디오 등을 저장 후 자기들끼리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런 이미지 등을 이용해 가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더 강도 높은 성적 착취로 이어가거나 가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들 이미지들을 가지고 베스트 이미지 투표를 하고 명예의 전당에 공유하기도 하기도 한다. 경찰과 아동 보호 센터는 이러한 커뮤니티들과 다크웹 채팅방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최근 섯다운으로 더 많은 아이가 온라인에 머무는 것에 고무되어있는 사용자들의 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부모 혹은 미성년자들을 돌보는 모두에게 Cybertip.ca나 아동보호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어떻게 미성년자들을 보호할지에 대해 학습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아동 보호 센터가 부모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팁의 예를 들자면 자녀들이 침실이나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이나 랩탑, 테블릿 등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앱, 게임, 웹사이트를 이용하는지 숙지할 것, 자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체험해 볼 것, 집안에서 언제 얼마나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규칙을 자녀와 함께 정할 것, 그리고 SNS 등에서 자녀에게 친구 요청이 있을 때는 부모와 상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경찰은 무엇보다도 자녀와의 대화 강조하고 있다. 10대 후반의 청소년이라도 부모와 차분한 대화를 가지는 시간이 사건을 조기에 포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 참고자료

- CBC(2020. 4. 21.),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on rise in Alberta with perpetrators, victims at home during COVID-19 crisis",  
<https://www.cbc.ca/news/canada/calgary/online-ice-child-sex-exploitation-alberta-1.5539359>  
(접속일 : 2020.05.08.)
- Global News(2020.04.21.),  
"ICE reports spike in online child exploitation cases in Alberta amid COVID-19 pandemic",  
<https://globalnews.ca/news/6847825/alberta-child-exploitation-rise-coronavirus/>  
(접속일 : 2020.05.08.)
- CBC(2020.04.24.),  
"Online sexual predators eager to take advantage of greater access to kids during COVID-19, police warn",  
<https://www.cbc.ca/news/canada/sexual-predators-children-online-pandemic-1.5542166>  
(접속일 : 2020.05.08.)
- Canadian Centre of Child Protection(2020),  
"Supporting you through COVID-19",  
<https://protectchildren.ca/en/resources-research/supporting-you-through-covid-19/>  
(접속일 : 2020.05.08.)